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5월 9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산업기술개발과 문동민 과장(2110-5181), 한철희 서기관(5185) (동반성장 관련) 동반성장팀 최우혁 팀장(3994), 박일철 사무관(3995)		

지경부, '현장공감 R&D 전략' 발표

- 국내여비 식비 회의비 의무정산 면제하고 중간평가 연 2회로 완화

앞으로 정부 R&D 전담기관의 국내여비·식비·회의비의 의무정산이 면제되고, 중간평가도 연 2회 이하로 완화된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벤처기업협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 등 8개 중소기업 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장공감 R&D 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현장공감 R&D 전략 내용은 국내여비·식비·회의비를 의무정산 대상에서 제외시켜 연구자의 제출서류(영수증)를 200개 이상 감소시켰다.

R&D 과제의 중간평가 횟수도 연 3~4회에서 연 2회 이하로 완화키로 했으며, 사업계획서 분량도 기존 100~300페이지에서 50~100페이지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또 매년 약 5천명에게 R&D 무상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연구과제 결과* "혁신성과"를 도출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기술료의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 연구과제 결과는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등 4개 등급으로 구분

이밖에 '흙 속의 진주찾기형 기획'을 신설하여 실패 과제 중에서도 전략적 필요를 지닌 기술은 차년도 지원 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절차는 간편하게' '문턱은 낮게' '연구는 창의적으로'라는 슬로건으로 R&D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장공감 R&D 전략'을 수립했다.

이 같은 지식경제부의 R&D 전략과 관련, (주)필코씨앤디의 고현종 연구소장은 "통제·관리 위주의 연구비 사용 시스템이 사용자 편의로 개선된 데다 서식도 간소화돼, 중소기업 연구원의 몰입도가 향상되고 사업 문턱이 낮아져 창의적 연구를 위한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지식경제부는 금년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5~6월중 지역에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공감 R&D 전략'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단체장 오찬 간담회 논의 내용

한편, 오찬 간담회에서 홍석우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견기업국 출범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가 2조달러로 가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은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데 있는 만큼, 이번 조직 신설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규모와 내용면에서 한층 더 심화되고, 중소기업계의 피부에 와 닿는 지원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피력하였다.

아울러 최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등 중소·벤처기업의 시장 확보와 발전을 위해,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각종 노력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지식경제부 산업정책의 중심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데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중 FTA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감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협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한중 FTA는 우리 산업·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홍 장관은 대·중소기업간의 대표적인 동반성장 모델로 성과공유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공정한 성과배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내다 봤다. 성과공유제가 제대로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혁신적 제안이 바탕이 되는 만큼 수혜자인 중소기업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하여 줄 것을 함께 당부하였다.

참고 1 중소기업 단체장 오찬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2.5.8.(화), 12:30~14:00, 여의도 렉싱턴 호텔 2층 첼시홀

□ 개최 배경 : 중소기업계와의 소통 강화 및 현장의견 청취

□ 참 석

○ 정 부 : 장관, 산업경제정책관, 산업기술정책관, 중견기업정책관

○ 주요 중소기업 단체장(8명)

단체	참석자	비고
벤처기업협회	남민우 회장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수태 회장	현대산기 대표이사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김은호 회장	
여성벤처협회	최정숙 회장	포커스컴퍼니 대표이사
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지철 회장	현대산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자동차공업협동조합	신달석 이사장	동명통산 대표이사
정보통신산업협동조합	주대철 이사장	세진텔레시스 대표이사
중기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 오찬 간담회 일정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2:30 ~ 12:35 (5')	인사 말씀	장관
12:35 ~ 12:45 (10')	「현장공감 R&D 전략」 보고	산업기술정책관
12:45 ~ 13:55 (70')	오찬, 건의사항 청취	참석자 전원
13:55 ~ 14:00 (5')	마무리 말씀	장관

참고 2 "현장공감 R&D 전략" 세부 내용

1. 대책 수립 배경

지식경제부는 '10~'11년중 두 차례('10. 3월, '11. 3월) 'R&D 혁신 방안'을 수립하여 R&D 시스템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대형시장의 창출과 산업 혁신의 가속화에 필요한 큰 틀을 정비한 바 있다.

* 1단계 혁신 방안 : 지식경제 R&D 사업구조 개편, 전략기획단(단장 : 황창규) 설치 등
  2단계 혁신 방안 : 도전적 R&D 시스템 구축, 동반성장 R&D 추진 등

다만, 엄격한 사업 관리, 여전히 높은 문턱, 우수 연구성과를 위한 유인 부족 등으로 인해 'R&D 혁신 방안'의 취지가 일부 퇴색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지난 5개월간 산·학·연 연구자 간담회(15회),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방문 등으로 연구자의 애로를 수렴함으로써, 연구 현장에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R&D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2. 기본 방향 및 정책 과제

"현장공감 R&D" 전략을 통하여 ① 연구몰입형 R&D ② 문턱낮은 R&D ③ 자율적·창의적 R&D가 활성화된다.

(1)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연구수행 중 지출한 '국내여비·회의비·식비'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에 대한 의무정산이 면제되어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의무정산 면제는 지식경제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간 협의를 통해 법적 근거*가 확보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담기관이 정산기준에 따라 연구비(국내여비·회의비·식비) 사용의 가부(可否)를 확인하는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5. 8일), 지식경제 R&D 사업비 규정 개정(6월중)

다만, 국내여비·회의비·식비의 의무정산이 면제되더라도 연구 수행 기관은 자체적으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참고 3)

< 의무정산 면제에 따른 정산서류의 양적 변화>

연구비 정산을 위하여 과제당 제출하는 증빙서류(영수증)는 **매년 약 800건 이상** – 이 중에서 국내여비·회의비·식비 관련 서류는 30~40%	⇨ 연구비 정산을 위하여 과제당 제출하는 증빙서류(영수증)가 **매년 약 200개 이상 감소**

지식경제부의 대표적 R&D 사업인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서 과제기간 중 15~20회에 달하던 중간평가 횟수가 10회 이하로 경감(5년 기준)되어 연구자의 평가준비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신호등 평가 체제*가 도입되어 연구진척이 우수한 과제는 중간평가가 연 3~4회에서 2회로 줄어들고, 연차평가때마다 매년 실시되던 상대비교평가는 '13년부터 과제기간 중 1회로 완화된다. (※ 참고 4)

* 연구진척 양호 과제는 '녹색', 미흡한 과제는 '황색' 및 차년도 예산 5% 삭감, 불량 과제는 '적색' 부여 후 중단여부를 결정하되 계속 진행시 차년도 예산 10% 삭감

(2) 문턱이 낮은 R&D 시스템 구축

'R&D 사업 신청절차 간소화' 작업이 추진되어 지식경제 R&D 사업 참여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과 종류가 6월말까지 정비될 계획이다. 특히, 사업신청의 필수 서류인 "사업계획서"는 연구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양식이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 참고 5)

'R&D 교육 서비스'가 신설되어 중소·중견기업 직원, 대학·연구소 행정직원 등에게 R&D 사업 전주기(사업계획서 작성, 연구비 관리, 평가 대응, 지재권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담기관(KEIT)은 약 140명 규모의 교육 장소*를 확보하고 5. 21일(月)부터 총 25시간(4일)의 무상교육을 매주 실시한다. 교육 신청은 5. 10일(木)부터 전담기관 홈페이지(www.keit.re.kr)에서 가능하고 우선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 참고 6)

* 교육 장소 :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인근 '연봉빌딩' 10층

(3)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촉진

우수 연구성과의 창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혁신성과"*를 도출한 기관 및 연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이 강화된다.

* 연구과제 결과는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등 4개 등급으로 최종 평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에 "혁신트랙"이 신설되어 자유공모 형태의 기술개발이 추진되며, 최근 2년 내에 최고 평가등급인 "혁신성과"를 받은 적이 있는 연구자에게 혁신트랙의 우선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혁신성과"를 도출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정부기술료 30%를 감면하고, 기술료 감면분은 참여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First Mover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실패도 자산이 되는 문화가 정착된다. (※ 참고 7)

연구개발의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R&D 전주기(기획 → 수행 → 평가)에 걸쳐 마련된 "도전적 R&D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고, 「흙 속 진주 찾기형」 과제 기획이 신설되어 "성실수행"으로 판정된 과제 중 전략적 필요성이 있는 기술은 차년도 공고 과제에 포함될 계획이다.

* PD 제도 도입, 도전적 목표 검증단 구성, 기술전문가 중심의 중간점검, 과제목표 상향절차 간소화, 성실수행에 대한 엄격한 판정 및 페널티 면제 등

참고 3 국내여비·회의비·식비 의무정산 면제

□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를 개편하여 **"연구과제추진비"**를 신설하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출 항목(회의후 식사, 국내출장, 야근식대 등)을 포함

<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 개편방안 >

연구활동비
·국내외 훈련비
·공공요금, 인쇄·복사비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
·기술정보 수집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회의비(식사)
·여비(국내, 시내교통)
·식비(야근식대)
·연구환경유지비(비품구입)

⇨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외 훈련비	
·공공요금, 인쇄·복사비	
·강사료, 전문가 활용비	
·기술정보 수집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회의비(식사)
	·여비(국내, 시내교통)
	·식비(야근식대)
	·연구환경유지비(비품구입)

□ 국내여비·회의비·식비에 대한 전담기관 의무정산을 면제함으로써 **연구비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연구몰입* 제고

* 연구비 정산 관련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는 영수증의 수가 약 30~40% 감소 예상

○ 기관 자체적으로는 연구비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함

* 연구비 사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평가(진도점검, 실적평가)시 10% 이내의 과제를 임의 선정하여 연구과제추진비의 사용 현황을 확인 예정

□ 연구과제추진비는 직접비(인건비 포함)의 일정비율 이하로 계상하되 사업성격에 따라 차별화

참고 4 신호등 평가 도입에 따른 중간평가 간소화 계획

□ 기존에는 연구진척이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도 연 3~4회 평가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과제의 평가 흐름 (개편 전) >

0.5년차	1년차	12~13개월	1.5년차	2년차
진도점검	실태조사	연차평가 (상대평가로 하위 10~15% 탈락)	진도점검	실태조사

24~25개월	2.5년차	3년차	36~37개월	3.5년차
연차평가 (상대평가로 하위 10~15% 탈락)	진도점검	실태조사	연차평가 (상대평가로 하위 10~15% 탈락)	진도점검

4년차	48~49개월	4.5년차	5년차	60~61개월
실태조사	연차평가 (상대평가로 하위 10~15% 탈락)	진도점검	실태조사	최종평가

※ 상대비교평가를 받는 횟수 : 4회

⇩

□ 향후 연구진척이 우수한 과제는 연 2회 이하로 평가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과제의 평가 흐름 (개편 후) >

0.5년차	1년차	1.5년차	2년차	2.5년차
애로상담 및 신호등 부여 (적색은 특별평가)	실적평가 및 신호등 부여 (적색은 특별평가)	진도점검 및 신호등 부여 (적색은 특별평가)	실적평가 및 신호등 부여 (적색은 특별평가)	진도점검 및 신호등 부여 (적색은 특별평가)

3년차	3.5년차	4년차	4.5년차	5년차
상대비교평가 (상대평가로 하위 20% 내외 탈락)	학회발표 혹은 진도점검 (적색은 특별평가)	실적평가 및 신호등 부여 (적색은 특별평가)	학회발표 혹은 진도점검	최종 평가

※ 상대비교평가를 받는 횟수 : 1회

참고 5 사업계획서 개편 전-후 비교

기존 서식		개편후 서식
1. 기술 개발의 필요성(파급효과 등)		
2. 관련현황(경쟁기관, 지재권, 표준화)		
3.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	**1.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4. 기술개발 추진 방법, 전략 및 체계	→	**2. 기술개발 추진 방법**
5. 연구시설 및 보유장비 현황	→	**3. 연구시설 및 보유장비 현황**
6. 연구원 현황	→	**4. 연구원 현황**
7. 총사업비(현금, 현물 등) 구성	→	**5. 총사업비(현금, 현물 등) 구성**
8.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	**6.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9.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0. 3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1. 4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2. 5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3. 수행기관 현황	→	**7. 수행기관 현황**
14. 사업화 계획	→	**8. 사업화 계획** (원천기술형 과제는 생략可)

참고 6 R&D 교육 프로그램 신설

□ 전담기관(KEIT)이 주관하여 **R&D 교육 프로그램** 신규 운영

○ 과제 신청부터 지재권 관리에 이르는 R&D 전 과정에서 강의 주제를 선별하여 25시간 교육 과정을 개설('12. 5월)

- 4일간 교육 후 테스트를 실시하며 70점 이상에게 수료증 발급

○ 중소기업 직원*, 대학·연구소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실시

* 중소기업에서 연구지원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동 교육의 의무적 이수 필요

○ 주제별로 전담기관 직원이 강의를 담당하고 필요시 외부강사 위촉

□ 전담기관은 **교육 실적**을 집계하고 재교육 대상자를 지속 관리

< R&D 교육 프로그램 강의 주제 >

구 분	교육 내용 (소요 시간)
과제도출·신청	■ 과제기획 프로세스 이해(2시간) 및 기획서 작성(2시간) ■ R&D 환경 및 정책의 이해 (1시간) ■ R&D 사업 소개 (1시간)
과제선정관리	■ R&D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3시간) ■ R&D 관련 규정의 이해 (2시간)
과제진도관리	■ 평가관리대응 실무 (2시간) ■ 과제수행 결과정리 실무, 연구노트 작성법 (2시간) ■ 기술보호 등 보안관리 (1시간), 연구윤리 (1시간)
성과관리	■ 지적재산권 등 R&D 성과 관리 (1시간) ■ 기술료 제도의 이해 (1시간)
사업비관리	■ 사업비 집행/관리/정산 방법 및 RCMS 실습 (6시간)

참고 7 도전적 R&D 시스템 구축

□ **기획 및 선정단계**에서 연구개발 과제의 도전성을 확보

○ 기술분야별 PD가 산업융합원천기술과제를 신규기획하고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도전적 목표검증단(現 18개)이 도전성을 검증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개발목표의 도전성이 선정평가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항목* 개선

* (현행) 목표 부합도만 고려 → (개선) 목표 부합도 및 목표 도전성을 고려

□ **수행단계**에서 PD를 비롯한 '기술전문가' 중심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목표상향 절차를 간소화

□ **평가단계**에서 연구개발 목표를 미달성한 과제는 "성실수행"으로 엄격하게 판정하고 페널티는 면제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하여 성실수행 과제에 대해 정액기술료* 징수

* 과제성공시 참여기업은 경상기술료를 선택하여 기술료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성실수행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액기술료 납부 의무를 부과

□ **「흙 속 진주찾기형」 과제기획**을 신설하여 "성실수행" 과제 중 전략적으로 꼭 확보되어야 할 기술은 **차년도 기획과제**에 포함

○ 분야별 PD가 "성실수행" 과제 중 1개를 차년도 과제용으로 재기획

○ 재기획된 과제에 대해서는 차년도 과제 중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최종적으로 사업별 심의위원회에서 **1~2개 과제** 선정

참고 8 R&D 정책 설명회 개최 일정

□ 지식경제 R&D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현장 공감 R&D 전략'과 '지식경제 R&D 규정 개정안'을 설명할 계획

< 정책설명회 일정 >

일 시	지 역	장 소
5. 22일(화) 14:00	대 구	대구 테크노파크(TP) 2층 대회의실
5. 24일(목) 14:00	대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1층 대강당
5. 31일(목) 14:00	전 주	전북대학교 진수당(법학전문대학원) 2층 바오로 홀 (지경부 주최 '우수 R&D 기업 채용박람회'와 연계)
6. 14일(목) 14:00	창 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권본부 대회의실
6. 28일(목) 15:00	서 울	COEX 3층 301호 회의실 ('지식경제 R&D 성과전시회'와 연계)